

2020 년 10 월 18 일 “아브라함 이야기(7) 할례의 참 의미”(창 17:6-11)

성 어거스틴의 고백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쉼(만족과 참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엄청 애쓰는 가운데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로, 또는 자기 나름의 철학과 방식으로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공허를 경험하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래의 인간적 대책으로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이 궁극적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1]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은 86 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 년간 아버지로서 기쁨(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참고: 17:17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과 후손의 창조의 회복의 뜻을 성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하는데, 이스마엘의 출생의 비밀 속에는 인간의 주도과 책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따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계획과 성취 속으로 들어오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임신이 불가능한 노 부부에게 주시는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이삭을 통해 번성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4 절).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아브람(고귀한 아버지)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열국, 많은 사람의 아버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은 12, 15 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7 장에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와 네 아내의 방법이 아닌 당신의 방법으로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실 일을 다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2]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모든 후손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참 복을 받게 하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알도록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후손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1, 7 절)

6 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이라는 단어는 **1:28** 에서 처음 나온 에덴 용어입니다. 아담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낳은 셋을 통해 경건 계열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 경건 계열을 부활시키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번성한 후손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창조의 뜻을 알고 이루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3] 언약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의 의미

아브라함과 번성한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뜻과 목적을 잊지 않도록 남자들의 몸에 표시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당시 셈 족의 문화 속에서 생리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례에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후손들이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즉, 하나님 나라(통치)를 이 땅에서 성취하시려는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상징으로서 할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상징은 실체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예: 국기와 국가). 따라서 아브라함 가에서 행하는 할례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일을 기뻐하며 동참하는 삶의 실체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기를 모독하면 국가 모독죄로 취급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가족들도 할례를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할례의 의미는 신구약을 관통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신 30:6, 렘 4:4; 9:25-26**, 신약에서는 **롬 2:28-29; 4:10-13, 갈 5:2-12, 골 2:11** 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몸에 행하는 할례보다 삶에서 이루어야 할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롬 2:28-29 '... 겉모양으로 살갓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골 2:11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시다'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할례로부터 계승되는 변치 않는 핵심적 의미를 지킬 것을 요구받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궁극적 성취(재림 때)를 향해 가기 위해, 그분의 구원과 창조회복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만족, 기쁨,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할례의 상징적 의미를 삶에서 실현할 때 열리게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눈을 떠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삶에서 구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라함은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2. 할례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성구들을 찾아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축복 안으로 들어왔습니까?